

# 한중 중국어교육계의 과업중심 교수법 연구 경향 비교\*

林娟廷\*\*

## 目 錄

1. 서론
  2. 2007-2017년 한국과 중국의 연구 결과
    - 1) 연구 방법
    - 2) 한중 연구 결과
  3. 연구 경향 및 제안
    - 1) 연구 경향
    - 2) 제안
  4. 결론
- 參考文獻  
ABSTRACT

## 1. 서론

과업중심 교수법(Task-based Language Teaching; TBLT)이란 학습자들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목표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법을 말한다.<sup>1)</sup> 또한 과업중심 교수법은 결과

\* 본 논문은 지난 2017년 11월 3일에 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된 韓中人文文化交流聯合學術大會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학술대회 발표 후 2017년 후반기에 발표된 논문을 새로 분석대상에 첨가하였고, 전체적인 수정과 보완을 진행하여 논문을 완성하였다.

\*\* 又松大學校 中國學部 兼任教授

1) 과업 및 과업중심 교수법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학자인

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외국어 교수법으로, 특히 과업수행 과정<sup>2)</sup>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동안 외국어 교육계에서는 특히 과업중심 교수법의 효과적인 실행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중국어교육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과업중심 교수법을 실제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응용하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재 편찬 및 평가 등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그동안 중국어 교육계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해 보았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와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중국어교육계에서 발표된 과업중심 교수법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여 양국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여 향후 발전방향 또한 모색하고자 한다.

## 2. 2007-2017년 한국과 중국의 연구 결과

### 1) 연구 방법

본고는 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의 ‘국회도서관’, ‘RISS’, ‘DBpia’ 등의 논문

Nunan(1989), Willis(1996), Prabhu(1987) 등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외국어 학습자들이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어진 과업(task)을 목표언어로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 Willis(1996)는 과업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과업 전 단계(Pre-task), 과업 수행 단계(Task), 과업 후 단계(Post-task)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업수행 과정이란 이 세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

검색 웹사이트와 중국의 ‘中國知網(CNKI)’ 웹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양국에서 발표되어 웹사이트에 수록된 논문 중에 과업중심 교수법과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였고, 검토 과정을 통해 중복 수록된 논문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교육이 아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1언어로서의 중국어교육의 연구도 검색에서 제외하였다.

검색결과 한국에서는 총 83편의 논문이, 중국에서는 총 349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는데, 한국의 논문은 중국에 비해 편수가 현저히 적어서 부득이하게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은 석박사 학위논문만으로도 그 편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학술지 논문은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sup>3)</sup>

## 2) 한중 연구 결과

이어서 한중 양국의 과업중심 교수법 관련 연구 결과를 연도별 발표논문, 교육대상, 학습자 수준, 교육영역, 연구내용, 연구 방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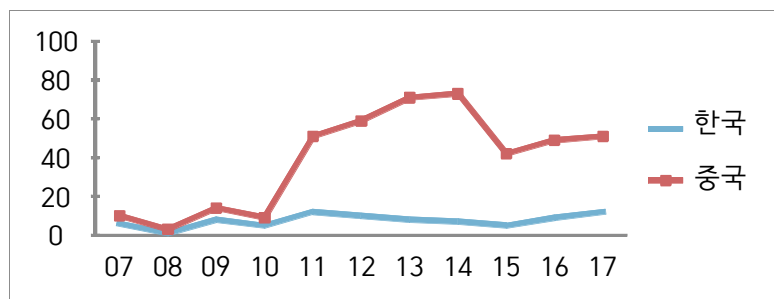
### (1) 연도별 발표논문

양국의 발표 논문을 연도별로 분류한 결과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우선 한국에서는 2007년에는 6편, 2008년에는 1편, 2009년에는 8편, 2010년에는 5편, 2011년에는 12편, 2012년에는 10편, 2013년에는 8편, 2014년에는 7편,

3) 중국의 분석자료는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제한하는 반면 한국의 분석자료에는 학술지 논문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편수가 너무 적어 오히려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작성방법이 동일하지 않음이 분석결과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연구 방법을 분류할 때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만 제한하는 등 최대한 단순화시킨 척도를 기준으로 양국의 자료를 분류해 보았다.

2015년에는 5편, 2016년에는 9편, 2017년에는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논문 편수만을 근거로 할 때 2011년은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 연구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고, 그 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과 중국의 연도별 발표논문

이어서 중국의 연구 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7년에는 4편, 2008년에는 2편, 2009년에는 6편, 2010년에는 4편, 2011년에는 39편, 2012년에는 49편, 2013년에는 63편, 2014년에는 66편, 2015년에는 37편, 2016년에는 40편, 2017년에는 3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중국에서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 발표 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중국은 2014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2011년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교육대상

다음으로 논문에서 다루는 교육대상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우선 한국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63.9%(53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sup>4)</sup> 그 다음으로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0.5%(17편)로 나타났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0.8%(9편)의 비율을 보였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전체 논문 중 약 84.4%의 비율로 나타나, 한국에서는 정규 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업중심 교수법의 실행을 연구한 논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한국과 중국의 교육대상별 논문 편수 및 비율

국가	분류	중고교	대학/예과	일반 성인	아동	공자학원	단기 연수	기타	합계
한국	편수(편)	53	17	9	3		1		83
	백분율(%)	63.9	20.5	10.8	3.6		1.2		100.0
중국	편수(편)	35	67	192	24	11	14	6	349
	백분율(%)	10.0	19.2	55.0	6.9	3.2	4.0	1.7	100.0

다음으로 중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다양한 형태의 연수과정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일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55.0%(192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과생<sup>5)</sup>을 포함한 대학생(본과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19.2%(67편)로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과 큰 차이를 보여 교육대상의 편중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10.0%(35편)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아동이나 공자학원, 그리고 4주 혹은 6주 기간의 단기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다소 존재하였다.

- 4)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들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석박사 학위논문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이거나 교사로의 취업을 희망하면서 교육대학원을 다닌 연구자들의 졸업논문인 반면, 일반 학술지 논문은 대부분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연구자들이 작성한 논문이었기 때문이다.
- 5) 중국에서 유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에서는 대부분 대학 입학 전에 본교에서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예과반(預科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예과반에서는 일반적인 중국어 학습 및 입시 관련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일반 성인 학습자 대상의 논문이 가장 많이 출판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류가 바로 일반 성인 학습자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3) 학습자 수준

다음으로 학습자 수준을 기준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한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급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총 62편으로 약 74.7%의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뒤를 이어 논문에서 특정한 학습자 수준을 지정하지 않거나, 초-중-고급의 학습자 수준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논문이 11편으로 13.3%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명확하게 고급 수준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찾기 어려웠고, 대신 중고급 수준을 통합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12.0%(10편)를 차지했다.

<표 2> 한국과 중국의 학습자 수준별 논문 편수 및 비율

국가	분류	초급	중고급	고급	통합	합계
한국	편수(편)	62	10	0	11	83
	백분율(%)	74.7	12.0	0.0	13.3	100.0
중국	편수(편)	152	97	21	79	349
	백분율(%)	43.6	27.8	6.0	22.6	100.0

다음으로 중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급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약 43.6%(152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중고급 수준의 논문이 27.8%(97편), 학습자 수준을 제한하지 않은 논문이 22.6%(79편)로 나타나 초급 수준의 논문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한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급 수준의 중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도 21편(6.0%)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교육영역

다음으로 논문에서 연구하는 교육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 중 42.2%(35편)의 논문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중국어기능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 특정 교육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종합적인 중국어 교육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약 38.6%(32편)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어법, 어휘, 한자 등의 중국어요소와 문화 등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어요소와 관련된 논문 10편 중 8편의 논문이 어법 및 어휘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35편의 중국어기능 관련 연구 중 23편의 논문이 중국어 말하기 교육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듣기와 쓰기는 각각 5편이었고 읽기 관련 연구는 2편으로 나타나 문제점을 드러냈다.

<표 3> 한국과 중국의 교육영역별 논문 편수 및 비율

국가	분류	중국어요소	중국어기능	문화	특수목적 <sup>6)</sup>	종합	기타	합계
한국	편수(편)	10	35	3	3	32		83
	백분율(%)	12.0	42.2	3.6	3.6	38.6		100.0
중국	편수(편)	29	168	10	31	98	13	349
	백분율(%)	8.3	48.1	2.9	8.9	28.1	3.7	100.0

이어서 중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중국어기능 교육 연구가 48.1%(168편)로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특정 교육영역을 제한하지 않은 종합 성격의 논문이 28.1%(98편)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두 영역을 제외한 중국어요소, 문화, 특수 목적(비즈니스, 여행, 사이버, 통역 등) 등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모두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 보완

6) 비즈니스 중국어(商務漢語), 여행(旅遊漢語), 사이버(網絡漢語), 통역(翻譯) 등의 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과 유사한 결과로 한국과 중국 모두 중국어기능 교육과 종합 성격의 교육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중국어기능 교육관련 연구에서 총 168편의 논문 중에 127편의 논문이 중국어 말하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외에 듣기(11편), 읽기(11편), 쓰기(19편)와 관련된 논문은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중국어요소 교육과 관련된 논문 29편은 모두 어법(22편)과 어휘(7편)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이 또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 (5) 연구내용

이어서 연구내용별 논문 편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한국과 중국의 연구내용별 논문 편 및 비율

국가	분류	교육안/ 과업설계	사례 연구	비교 연구	교재분석/ 개발	평가	총론 (이론)	기타	합계
한국	편수(편)	42	20		18	1	2		83
	백분율(%)	50.6	24.1		21.7	1.2	2.4		100.0
중국	편수(편)	208	82	19	31	7		2	349
	백분율(%)	59.6	23.5	5.4	8.9	2.0		0.6	100.0

우선 한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거나 수업 중에 이루어질 과업을 설계하는 논문이 약 50.6%(42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과업중심 교수법을 실제로 활용한 교육사례를 소개하거나 효과를 분석하는 논문이 24.1%(20편), 그 외에 현존하는 중국어 교재에서 과업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논문 또한 21.7%(18편)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평가와 총론 및 이론과 관련된 논문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국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거나 세부적인 과업을 설계하는 논문이 약 59.6%(208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과업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실제 교육사례를 소개하거나 교육 효과를 분석하는 논문이 23.5%(82편), 실제로 사용되는 중국어 교재에서 과업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논문은 8.9%(31편)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반해 평가, 총론(이론), 습득 등과 관련된 논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비교연구가 19편(5.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중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이 모국의 성공적인 교육 사례를 소개하거나, 해외의 공자학원이거나 대학에 파견된 중국인 교사들이 현지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중국과 비교하는 연구결과들이었다.

#### (6) 연구 방법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앞서 '각주 3'에서 밝혔듯이 본고는 연구 방법을 분석할 때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최대한 단순화시켜 살펴보았다. 우선 양적연구에는 설문조사 분석, 교육 효과 측정, 학습자 및 교사 만족도 분석 등이 포함되고, 질적연구에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방안 제시, 인터뷰, 참여관찰 등의 연구 방법이 포함된다.

<표 5> 한국과 중국의 연구 방법별 논문 편수 및 비율

국가	분류	편수(편)	백분율(%)
한국	양적연구	36	43.4
	질적연구	47	56.6
중국	양적연구	191	54.7
	질적연구	158	45.3

우선 한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질적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47

편(56.6%)으로 양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논문(36편, 43.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연구내용 중에서 교육안 및 과업설계와 관련된 논문이 가장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논문이 교육안을 제시하거나 과업을 설계한 후 학습효과를 측정 및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어서 중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는 반대로 양적연구가 54.7%(191편)로 질적연구(45.3%, 158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 한국과 달리 중국은 석박사 학위논문만을 분석에 포함시킨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양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모두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결과 또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3. 연구 경향 및 제안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과 중국의 통계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후, 향후 관련 연구 방향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연구 경향

##### (1) 특정 연구의 집중적 발전

지난 10년간 한국과 중국의 중국어교육계에서 이루어진 과업중심 교수법

관련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특정 연구의 집중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범위의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위나 내용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연구 및 교육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연구의 특색은 ‘초급 수준’, ‘교육안 및 과업 설계’, ‘말하기 교육’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초급 수준’ 관련된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현상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관찰되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초급 수준의 중국어 교육을 연구한 논문이 약 74.7%에 달해 연구의 편중현상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초급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전체 논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도, 중고급 수준과 특정 수준을 제한하지 않은 연구 결과가 모두 20%를 넘는 비율로 나타나 한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교육안 및 과업 설계’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50.6%와 59.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특히 과업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실제 구체적인 교육사례를 소개하는 논문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지난 10년간 과업중심 교수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 방안이나 과업을 설계하거나, 실제의 교육 사례를 공유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말하기 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특정 교육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종합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제외하면 중국어기능 교육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말하기 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중국어기능 교육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동시에 특히 말하기 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약 76%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Ellis(2003)가 주장했듯이 과업중심 교수법이 외국어 말하기 교육 및 능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기존 학자들의 이론을 연구에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sup>7)</sup>

## (2) 교육 및 연구내용의 다변화 모색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과업중심 교수법 관련 연구에서 교육 및 연구내용의 다변화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무엇보다 말하기와 함께 외국어 표현영역에 해당하는 쓰기 관련된 연구가 점차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8)</sup>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연구논문이 급격히 증가한 2011년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2013년 이후에 보다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sup>9)</sup>

특히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한국 모두 비즈니스 중국어(商務漢語)와 쓰기 교육을 접목한 연구 결과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에서는 趙恩瓊(2012), 홍제희(2013), 최태훈(2015)이 비즈니스 중국어 교육에서 과업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쓰기 교육 연구를 진행하였고, 중국에서는 董秀華(2009), 孫富勝(2011), 謝進花(2016) 등이 관련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 교육 관련 연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중국어 쓰기 교육과 비슷한 시기인 2012년부터 활성화되어 최근 들어서는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정상현(2012), 김나경(2013) 등이 있고, 중국에서는 吳靑(2012), 王昀(2013), 張惠(2016) 등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내용에서도 평가 및 교재 설계 등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양국 모두 최신의 연구 결과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특히 과업중심 교수법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평가 관련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7) Ellis, R.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24쪽.

8)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에서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영역으로, 듣기와 읽기는 이해영역으로 각각 분류한다.

9) 특히 중국에서는 전체 쓰기 관련 논문의 약 50%에 달하는 논문이 2013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검색되어, 이러한 현상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해 한국에서는 鄭彥野·韓在均(2015), 임연정(2016) 등이 연구를 진행하였고, 중국에서는 汪翼翼(2013), 喬鈺茗(2014), 王歡(2016)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0)</sup>

이처럼 한국과 중국에서는 교육 및 연구내용에서 다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2011년 전후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그러한 경향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연구가 성숙되어 발전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 (3) 질적·양적연구의 상호보완적 발전

다음으로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에서는 양적연구 방법과 질적연구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앞서 살펴 본 한중 연구 결과에서 한국은 질적연구의 비율(56.6%)이, 중국은 양적연구의 비율(54.7%)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에서는 질적연구 방법이, 반면 중국에서는 양적연구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sup>11)</sup> 그보다는 오히려 연구주제와 내용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에서는 검색 기간의 전반부인 2007년에서 2011년 이전에는 과업중심 교수법의 이론 및 장점을 소개하거나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양적연구에 비해 질적연구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에 양국 모두 논문의 양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교육 및 연구내용 또한 다각

10) 이와 같은 연구는 과업중심 교수법에 적합한 평가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평가방안의 타당성 및 신뢰도 등의 측면에서 아직 심화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향후 관련 연구의 발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 게다가 중국의 논문은 석박사 학위논문만으로 제한하고 한국의 논문은 학술지 논문까지 포함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양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 논문의 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국에서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설문조사나 교재의 통계분석 자료를 통해 교육안을 제시하거나 과업을 설계하는 연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업중심 교수법에서 실행되는 활동의 중심인 학습자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 또한 높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2011년 이후에 한국과 중국에서 양적연구의 성장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 및 연구내용이 다각화되면서 주제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되면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교육내용과 관련된 연구가 말하기 교육에서 쓰기 교육으로 확대되면서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안을 제시하는 질적연구의 방법이 다시 채택되었고, 중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해외 교육사례를 소개하는 연구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 (4) 대상 학습자의 확대 움직임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한국과 중국의 연구에서 대상 학습자를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중 중국어교육계의 주요 관심 학습자는 초급 수준이나 일반 성인학습자, 중고등학생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지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학습자의 범위가 상당히 좁게 설정되었고, 따라서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내용 또한 더불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분석을 진행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중국어교육계의 관심 학습자가 중고급 수준이나 아동 등으로 확대되고, 특히 비즈니스나 여행, 통역 등 특수한 목적을 갖고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중국어 교육 앱(APP)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원격 및 사이버교육이 대중화되는 최근 추세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회 및 경제 각계에서 고급 수준의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욱 뚜렷하게 발견되는데, 그 예로 蔡菁菁(2011), 祁蒙蒙(2012)은 사이버 및 원격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중심 교수법의 활용을 연구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학습자 수준을 고급으로 명확하게 지정한 18편의 논문 모두 2012년 이후의 논문이라는 점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동이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업중심 교수법의 활용을 연구하는 정상현(2012), 장은주(2013) 등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중국어 교육시장의 확장으로 인해 제시된 결과라 생각된다.<sup>12)</sup>

이처럼 과업중심 교수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다양한 학습자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발전단계로 진입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중국어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관심 및 연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2) 제안

### (1) 연구의 다변화 필요

앞서 살펴본 연구 경향 및 특색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교

12)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사이버나 원격 중국어 교육에서의 과업중심 교수법의 활용을 연구하는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중국어 교육이 먼대면 교육보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연구의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육내용 및 교육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양적 혹은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이 분명하며, 향후 연구의 범위와 내용 등이 반드시 심화되어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과 중국에서 과업중심 교수법과 관련된 연구가 2011년 전후로 최고조로 활성화 되었다가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연구 내용과 영역이 다각화되지 못한 현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학습자, 교육 및 연구내용 등에서 모두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급 수준의 학습자와 유아 및 아동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해외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는 동시에 평생교육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중국어 교수자를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중국어 교육시장이 일반 성인과 유아 및 아동 학습자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향후 관련 교육 실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 모두 중국어요소와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 사이버, 통역 등의 특수 목적과 관련된 연구는 공통적으로 모두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3)</sup> 특히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쓰기 및 말하기 교육과 비즈니스 중국어 교육의 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통합 교육의 진행에 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나 여행과 같은 특수 목적의 중국어 교육과 문화 혹은 중국어요소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보다 흥미로운 교육방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내용에서도 이전의 교육안 및 과업설계에서 벗어나 평가 등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는 현상을 더욱 장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

13) 특히 중국에서는 여행중국어와 관련된 연구가 지난 2012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 예로 張曉靜(2014), 張世穎(2015) 등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는데, 향후 한국의 중국어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연구는 지나치게 학습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그 폐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과업중심 교수법에서 활동의 중심이 학습자에게 있다고 해서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체 학습을 설계하고 상황에 따라 교육안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은 일반적인 중국어교육에서보다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교사의 역할 및 자질에 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연구 방법의 다양화

다음으로 연구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본고는 한국과 중국의 연구를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로 단순화시켜 분류하면서 한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것이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양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도, 정작 학습의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가장 실질적인 양적연구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즉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과업중심 교수법을 시행한 후의 학습효과를 분석하기 보다는 대부분 학습자의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어 보였다. 물론 과업중심 교수법의 실행 후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향후 관련 교육안이나 과업 설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질적연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많은 연구가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안을 제시하거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향후 교사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현 상황 및 학습자의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3) 외국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 확대

마지막으로 앞으로 외국의 우수사례 연구와 한국과의 비교연구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분석을 진행하며 한국의 사례연구에서는 대부분 국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실제 교육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해외 중국어 교육기관으로 파견된 중국 교사나 유학생들이 그 나라에서 실행된 교육 사례를 소개하는 연구 결과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예로 張慧(2010)는 미국, 董秀彩(2012)는 싱가포르, 張雲霓(2014)는 페루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중심 교수법을 응용한 종합, 독해, 말하기 등의 실제 교육사례를 소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비록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해외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업중심 교수법 활용 교육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의 장점을 흡수하여 우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교사들이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국어 수업을 바탕으로 제시된 결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참고가치가 더욱 높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李健(2014)은 제2언어로서의 영어교육계와 중국어교육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중심 교수법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향후 관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이 다른 외국어교육계와의 비교연구도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

## 4. 결론

지금까지 지난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중국어교육계에서 이루어진 과업중심 교수법 관련 연구의 특색 및 경향을 분석한 후 연구의 다변화, 연구 방법의 다양화, 외국의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 확대 등의 향후 연구방향 제안도 함께 제시해보았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연구는 교육대상, 교육영역, 연구내용, 연구 방법 등에서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로의 연구결과 및 연구 방법 등을 참고하면서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향후 중국어교육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중심 교수법의 응용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쉽게도 본고의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후속연구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본고의 통계자료 및 제안이 향후 관련 연구의 발전, 특히 연구방향 및 연구 방법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 김나경,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활용한 중국 문화 학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임연정, 「과업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중국어 말하기 교육 및 평가방안 탐색」, 『中國語教育과 研究』 제24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6.
- 장은주, 「運用“任務型教學法”的小學生漢語口語活動設計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정상현, 「초등학교 중국어 언어-문화 통합 지도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鄭彥野·韓在均, 「大學漢語中高級口語課的任務型測試」, 『中國語教育과 研究』 제22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5.
- 趙恩瓊, 「비즈니스 중국어 쓰기 수업 교육 방안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제77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 최태훈, 「한중 자기소개서 쓰기 활동에 관한 실행 연구」, 『中國言語研究』 제60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5.

- 홍제희, 「고등학교 『중국어 I』 쓰기활동 분석 및 설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Ellis, R.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Nunan, D.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tiv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Prabhu, *Second Language Pedag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Willis, J.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Longman. 1996.
- 蔡菁菁, 「任務型教學法在美國中學遠程漢語教學中的運用——堪薩斯大學孔子學院個案研究」, 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 董秀彩, 「基於任務型模式的小組互動漢語寫作教學——以新加坡某小學初級漢語應用文寫作教學實踐為例」, 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 董秀華, 「任務型商務應用文寫作課程“輸入性任務”設計探索」, 復旦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 李 健, 「漢、英語作為第二語言教學比較論——以任務型教學法為例」, 廣西大學碩士學位論文, 2014.
- 祁蒙蒙, 「基於網絡資源的任務型漢語教學設計——以泰國漢語學習者為例」,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 喬鈺茗, 「任務型漢語口語成績測試試卷設計——以《漢語口語速成（基礎篇）》為例」,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2014.
- 孫富勝, 「基於任務的商務漢語寫作教學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 王 歡, 「任務型漢語課堂中形成性評價體系的應用研究」, 浙江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 汪翼翼, 「漢語任務型口語教學中形成性評價的應用研究」, 華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 王 昀, 「任務型教學法在對外漢語中國文化教學中的應用」, 蘭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 吳 青, 「基於任務型教學法的對泰中國文化類課程教學設計」,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 謝進花, 「基於任務型教學法的對外漢語寫作課應用文寫作教學設計」, 雲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 張 惠, 「基於任務型教學的高級階段東幹留學生文化知識的教學設計」, 西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 張甜穎, 「任務型教學法在旅遊漢語口語教學中的應用」, 四川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5.
- 張曉靜, 「“任務型”四川歐美留學生旅遊漢語文化點教學設計與探討」, 四川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4.
- 張 慧, 「美國小學基於任務型教學的“三動化”漢語課堂教學模式的研究與應用——以美國Alice Boucher WLA學校為例」,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 張雲霓, 「基於任務型教學模式的漢語綜合課設計——以秘魯天主教大學孔子學院漢語課堂為例」, 上海外國語大學碩士學位論文, 2014.

웹사이트:

- |            |   |
|------------|---|
| 국회도서관      | <a href="http://www.nanet.go.kr">http://www.nanet.go.kr</a>   |
| DBpia      | <a href="http://www.dbpia.co.kr/">http://www.dbpia.co.kr/</a> |
| RISS       | <a href="http://www.riss.kr">http://www.riss.kr</a>           |
| 中國知網(CNKI) | <a href="http://www.cnki.net">http://www.cnki.net</a>         |

Abstract

TBLT in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China

Lim, Yeo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Trends in the Study of TBLT in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between Korea and China. By analyzing studies of TBLT in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over the past ten years, summarizes their fundamental ideas, and some problems in the previous studies a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and opinions are put forward according to the research status.

Key words : TCFL, TBLT, Comparative Study, Korea, China

투 고 일 : 2018. 10. 10. / 심 사 일 : 2018. 10. 15.~ 2018. 11. 15. / 게재확정일 : 2018. 11. 20.